

#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언어문제 (2022년 2월 24일)

정경택(경상국립대)

# 1. 서론

- 우크라이나(**Украина, Ukraina**)는 1918년까지 갈리시아(**Галиция, Galicija**)를 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을 지칭.

\*고대러시아어: *оукраина*(oukraina, 국경, 경계 지역)

- 2022년 2월 21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두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며, 24일 러시아 뿌썬(V. Путин) 대통령이 침공 개시를 발표.
- 러시아는 침공 정당성으로 두 인민공화국과 러시아를 방어할 필요성을 주장, 네오 나치화된 우크라이나의 적절치 못한 특성을 거론.
- 서방은 러시아가 돈바스(Донбасс)의 분리주의 운동을 조장하여 침공 근거를 위해 두 공화국을 인정한 것이라고 추정.

# 러시아가 주장하는 침공 원인:

- 1) 나토의 동진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우려;
- 2) 우크라이나의 나치화 (=반 러시아);
- 3)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어 사용금지와 러시아어 사용자 탄압  
(2014~);
- 4)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개발;
- 5) 우크라이나의 생화학 무기 개발;
- 6) 우크라이나의 선제공격 위험.

# 모어에 따른 주민 분포

|        | 1989년        |       | 2001년        |       | 2011년(추정)    |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
| 모어     | 인구<br>(백만 명) | 비율(%) | 인구<br>(백만 명) | 비율(%) | 인구<br>(백만 명) | 비율(%) |
| 우크라이나어 | 33.3         | 64.7  | 32.6         | 67.8  | 32.4         | 71.1  |
| 러시아어   | 16.9         | 32.8  | 14.3         | 29.6  | 12.0         | 26.3  |
| 그 외    | 1.3          | 2.5   | 1.3          | 2.9   | 1.2          | 2.6   |
| 총계     | 51.5         | 100.0 | 48.2         | 100.0 | 45.6         | 100.0 |

## 2. 본론

### 1.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어 탄압 (2014~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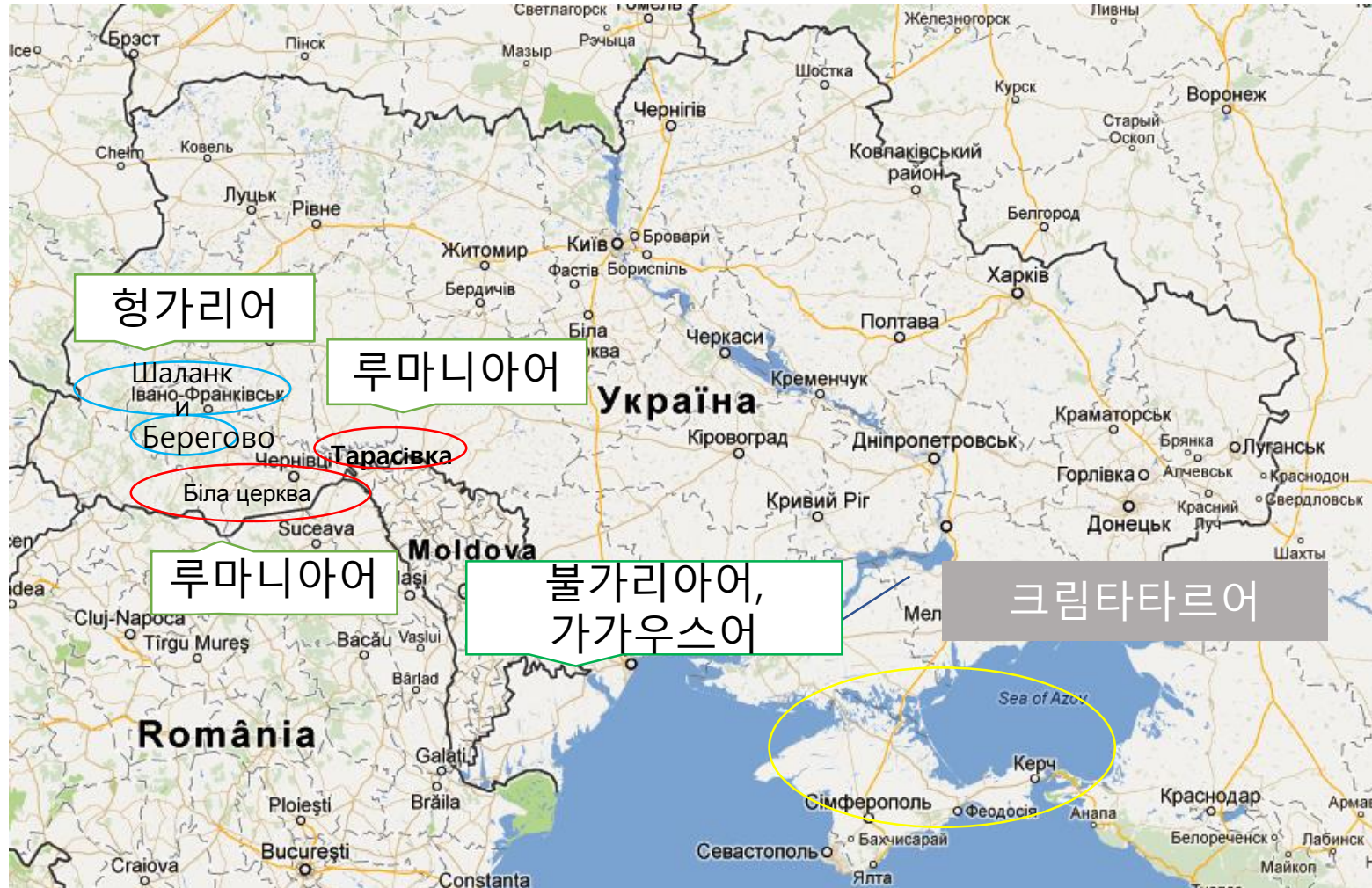
1.1. 2012년 8월 10일의 국가언어정책기본법(Закон "Об основ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языковой политики"):

6조. 1항. 우크라이나의 국어는 우크라이나어이다.

7조. 3항. 소수민족어를 쓰는 민족이 인구의 10%가 넘는 지역에  
서 그 소수민족어를 지역소비에트가 지역어로 정할 수 있다(7조 3항)

# 기타 언어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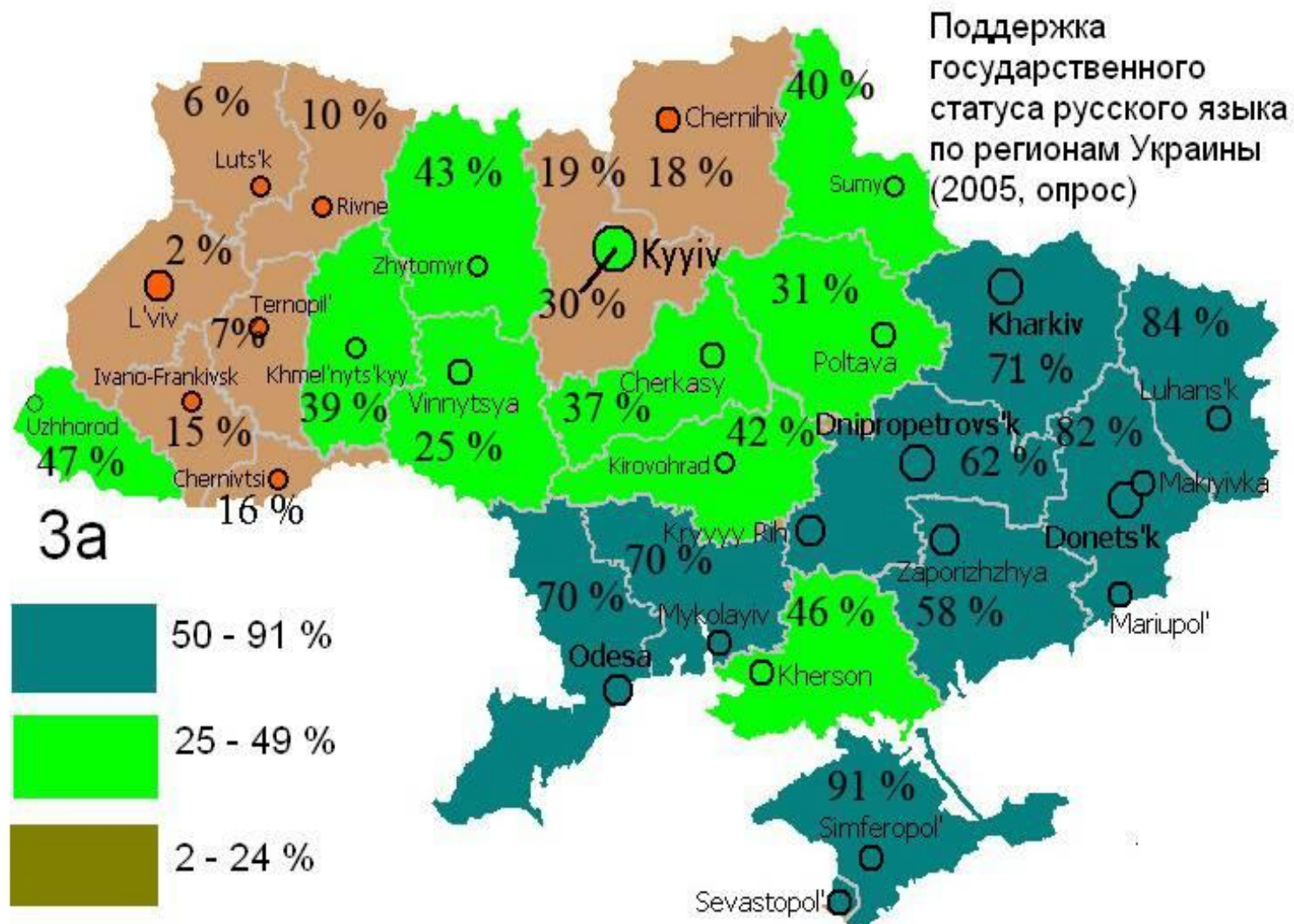
러시아어, 벨라루스어, 불가리아어, 아르메니아어, 가가우스어, 이디쉬어, 크림-타타르어, 몰도바어, 독어, 그리스어, 폴란드어, 집시어, 루마니아어, 슬로박어, 헝가리어, 루신어, 카라임어, 크림착어 등



# 러시아어가 지배적인 주

<http://news.tochka.net/ua/126956-zakon-o-yazykakh-gde-russkiy-uzhe-stal-regionalnym-karta/>







# 모어와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

- 시민단체 < Простір свободи> 설문 자료(IIIXIII-III, ⅃)

|         | 모어    |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|
|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
| 우크라이나어  | ⅤX    | ⅣⅤ           |
| 러시아어    | IIIIX | IIIIX        |
| 둘 다 똑같이 | IIIX  | Ⅳ            |
| 기타      | I     | I            |

## 1.2.

- 2014년 2월 23일 국가변혁 이후 집권한 민족주의, 친 서방 정권에서 최고회의(의회, Верховная рада)가 이 국가언어정책기본법을 폐기하려 했지만, 이 법의 폐기는 러시아어사용 주민이 대다수인 동부지역(돈바스)에서 저항을 초래.
- 당시 임시 대통령 투르치노프(투르치노우, О.В. Турчинов)는 최고회의가 새로운 법률을 채택할 때까지 이 법률의 폐지 결정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.  
그렇지만 결국 2018년 2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이 법을 위헌 판정, 이 법은 폐기.  
이에 따라 러시아어는 사실상 헌법 10조에 의해서만 조정되고 있을 뿐.

## \*우크라이나 헌법 10조

- 우크라이나어가 우크라이나의 국어이다.
- 국가는 우크라이나 전 영토에서 모든 사회활동 영역에서 우크라이나어의 전면적 발전과 기능화를 지원한다.
-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어와 우크라이나의 다른 소수민족어의 자유로운 발전, 사용과 보호를 보장한다.
- 국가는 국제적 의사소통어의 교육을 촉진한다.
- 우크라이나에서의 제 언어사용은 헌법과 법률로써 보장된다.

# 1.3. 라디오와 TV의 언어 쿼터 도입

- 2016년 6월 16일 최고회의가 “TV·라디오법” 채택, 라디오에 언어 쿼터를 확정. 이에 TV·라디오방송국은 국어방송 60% 이상(뉴스와 오락프로그램 등)을 보장.  
또한 우크라이나어 가요는 35% 이상이 되어야(EU 회원국 가요가 60% 이상일 경우만 25% 이상도 가능).  
황금시간대(07:00-14:00, 15:00-22:00시)에는 반드시 국어 가요 방송해야.
- 2017년 5월 23일 포로셴코 대통령(2014~2019년) 주도로 최고회의가 이 법의 강화 주장, 전국 및 지역의 TV·라디오방송국의 국어 뉴스는 주당 75%까지로(위반 시에는 벌금 부과).
- 소수 민족어 방송국의 경우 우크라이나어 방송을 30%까지, 외국 영화, TV 프로그램은 국어로서만 방송하도록 정함.

## 1.4. 교육영역에서의 러시아어 금지

- 2017년 9월 5일 의회가 새로운 “교육법” 채택:  
교육영역에서 러시아어와 소수민족어의 점진적 금지.  
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은 전적으로 우크라이나어로.
- 2018년부터 초등학교에서만 러시아어와 소수민족어로 교과목 교육.
- 2020년 9월 1일부터 우크라이나어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는 사실상 폐교.
- 2023년 9월 1일부터 EU 회원국의 소수민족어로 교육하는 학교도 우크라이나로 바꾸어야 한다.

## 1.5.인접국의 반발

- **헝가리**는 자카르파찌에(Закарпатське, 우크라이나의 서부지역으로 루마니아, 헝가리, 슬로바키아 폴란드와 접경, 민족분포도 우크라이나인 1,010,127명(80.5%), 헝가리인 151,516명(12.1%), 루마니아인 32,152명(2.6%), 러시아인 30,993명(2.5%). 2001년 당시)를 거론하며, 양국이 언어 문제를 합의할 때까지 우크라이나의 모든 국제적 주장을 막을 것이라고 선언.
- **러시아연방** 국가 두마(하원)는 2017년 9월 27일 “우크라이나의 토착 주민 및 소수민족이 모어로 교육받을 기본권 파괴 부적절에 대한” 결의안을 채택했는데,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교육법이 “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”(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)과 UN 아동권리협약(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, UNCRC)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민족 말살 법이라고 주장.

# I.Ⅱ.모어와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

- 시민단체 < Простір свободи> 설문 자료(ⅡXⅡ, Ⅱ)
- 대상: 우크라이나인

|         | 모어    | 집에서 쓰는 언어 |
|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
| 우크라이나어  | ⅡⅡⅢ   | ⅣⅡ-ⅤⅩ     |
| 러시아어    | ⅢⅢ-ⅣⅣ | ⅡⅡ-ⅢⅢ     |
| 둘 다 똑같이 | ⅣⅡ    |           |

## 1.7. 국어법 채택

- 2019년 4월 25일 우크라이나 최고회의가 “국어로서의 우크라이나어의 기능 보장법”을 채택
- 이 법은 국내에서 러시아어와 소수민족어 사용 가능성을 크게 제한.
- 1조 8항.

유일한 국어로서의 우크라이나어는 민족 간 의사소통어로 기능하며, 출신 민족과 무관하게 모든 우크라이나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보증 수단이 되며, 우크라이나의 통일과 국가안보의 요소이다.

- 이 법에 따라 모든 공무원, 직장인, 상거래, 서비스, 교육, 의료, 문화 부문 등의 종사자는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. 다만 종교와 개인 의사소통만 예외.
- 모든 문화-대중 행사는 국어로만 진행, 다른 언어로 된 연극 공연은 반드시 국어 자막이 들어가야 하고, 우크라이나어는 영화산업, 서적인쇄 및 출판의 기본으로 확정.
- 이 법에 따라, 인터넷을 포함 모든 매스컴에도 우크라이나어가 의무가 되었다.
- 이 법은 단계적으로 도입, 먼저, 2020년 1월 16일부터 광고 부문에 적용, 최종적으로 2024년 7월 16일부터 TV의 언어 쿼터 증가하게 되어 있었다.

## 2. 러시아어와 우크라이나어

- 러시아어와 우크라이나어 (그리고 벨라루스어)의 관계:  
한 언어의 세 방언인가? 별개의 언어인가?
-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기원(역사) 문제:  
키예프 루스(공국), 모스크바 루스, 폴로츠크 루스
- 크림 반도 문제

### 3. 결론

- 러-우 전쟁(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)의 결과는 예측하기 힘들다.
- 러시아의 모어 존중, 보전, 발전 정책은 러시아어가 소련 창건 이래 문맹퇴치와 공산주의의 전 세계 확산 수단, 130개 이상의 다민족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확장, 보전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.
- 1991년 12월 소련의 공식적인 해체 이후에도 러시아어와 문화의 발전과 보급을 위해 2007년 6월 푸틴 대통령이 "루스키 미르 폰드"라는 재단을 창설, 운영할 정도로 큰 관심, 해외 각국에 "러시아센터" 설치.
-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인, 러시아어 사용자, 러시아어 보호라는 명분은 분명히 전쟁(군사작전, 침공)의 한 원인임은 분명하다.